나는 일깨워 진리로 생명하니

요 8:31, 4:1, 23 및 요일 1:1-2 및 시 119:97, 99, 104

나는 일깨워 진리로 생명하니 (Sedano Read and Thank you) 요 8:31 나는 일깨워 진리로 생명하니 (Sedano Read and Thank you) 요 4:1 나는 일깨워 진리로 생명하니 (Sedano Read and Thank you) 요 4:23 나는 일깨워 진리로 생명하니 (Sedano Read and Thank you) 요일 1:1-2 나는 일깨워 진리로 생명하니 (Sedano Read and Thank you) 시 119:97, 99, 104

기억 말씀

"주여 나를 보게 하소서 나로 주의 법을 깨닫게 하소서 나는 주의 기업을 원하오니 주의 기업이 되도록 나를 도우소서 시 119:97, 99, 104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요 1:18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마 5:8

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 man hear my voice, and open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 and will sup with him, and he with me. 계 3:20

Ye must be born anew. 요 3:7

**Ye are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the lusts of your father ye will do.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and abode not in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speaketh a lie, he speaketh of his own: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it. 요 8:44

12월 5일 목요일

성경과 진리

요한복음 5장 38~40절을 읽으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성경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Read John 5:38–40. What is Jesus saying here about the Scriptures?

"구약 성경은 역사, 교훈, 예언 등 모든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비추고 있습니다. 신성한 제도에 관한 한, 유대교의 전체 체계는 복음의 압축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43. 아담에게 주어진 약속부터 가부장적 계보와 율법 경제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영광스러운 빛은 구속주의 발자취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선견자들은 베들레헴의 별, 곧 다가올 실로를 바라보며 미래의 일들이 신비로운 행렬로 그들 앞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희생 제물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여졌습니다. 모든 향기로운 구름 속에서 그분의 의가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희년 나팔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성소의 끔찍한 신비 속에서 그분의 영광이 거하셨습니다." DA 211.5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외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도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 안에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한 그들은 인격적으로도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DA 212.1

"In every page, whether history, or precept, or prophecy,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are irradiated with the glory of the Son of God. So far as it was of divine institution, the entire system of Judaism was a compacted prophecy of the gospel. To Christ "give all the prophets witness." Acts 10:43. From the promise given to Adam, down through the patriarchal line and the legal economy, heaven's glorious light made plain the footsteps of the Redeemer. Seers beheld the Star of Bethlehem, the Shiloh to come, as future things swept before them in mysterious procession. In every sacrifice Christ's death was shown. In every cloud of incense His righteousness ascended. By every jubilee trumpet His name was sounded. In the awful mystery of the holy of holies His glory dwelt. DA 211.5

"The Jews had the Scriptures in their possession, and supposed that in their mere outward knowledge of the word they had eternal life. But Jesus said, 'Ye have not His word abiding in you.' Having rejected Christ in His word, they rejected Him in person. 'Ye will not come to Me,' He said, 'that ye might have life.'" DA 212.1

누가복음 24:27을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요성을 밝히기 위해 먼저 성경을 가리킨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Read Luke 24:27. Why is it important that Jesus first pointed to the Scriptures in order to reveal the significance of His ministry?

"성경 역사의 알파인 모세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성경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 주셨다면 그들의 마음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여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의 유형과 예언으로 그분께 대한 증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들 위에 그들의 믿음이 확립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을 설명하는 것이 그분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죽음을 모든 희망의 소멸로 여겼습니다. 이제 그분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것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보여 주셨습니다." DA 796.4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증거로서 구약성경의 중요성을 보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구약성경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약성경을 폐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지라도 설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구약을 매우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6:31. DA 799.1

"Beginning at Moses, the very Alpha of Bible history, Christ expounded in all the Scriptures the things concerning Himself. Had He first made Himself known to them, their hearts would have been satisfied. In the fullness of their joy they would have hungered for nothing more. But it was necessary for them to understand the witness borne to Him by the types and prophecies of the Old Testament. Upon these their faith must be established. Christ performed no miracle to convince them, but it was His first work to explain the Scriptures. They had looked upon His death as the destruction of all their hopes. Now He showed from the prophets that this was the very strongest evidence for their faith. DA 796.4

"In teaching these disciples, Jesus showed the importance of the Old Testament as a witness to His mission. Many professed Christians now discard the Old Testament, claiming that it is no longer of any use. But such is not Christ's teaching. So highly did He value it that at one time He said, 'If they hear not Moses and the prophets, neither will they be persuaded, though one rose from the dead.'" Luke 16:31. DA 799.1

11월 6일 금요일

추가 생각

"이해력이 둔한 빌립의 모습에 놀라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함께 있으면서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에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내가 아버지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는 것을 믿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을 때 하느님이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인간에게 낮추셨지만 신격은 여전히 그분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아버지를 대표할 수 있었고, 제자들은 이 대표성을 3년 이상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DA 663.5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주어진 증거, 즉 인간이 스스로 행한 적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행하심에 안전하게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신성을 증거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아버지가 계시되었습니다." DA 664.1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 중요한 관계를 믿었다면, 멸망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낮은 믿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그분이 진정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 받을 수 있는 경험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닻을 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이 곧 닥쳐올 시험의 폭풍에 대비하여 얼마나 간절하고 끈질기게 준비되기를 원하셨나요? 그분은 그들을 하나님 안에 그분과 함께 숨게 하셨습니다." DA 664.2

"Amazed at his dullness of comprehension, Christ asked with pained surprise, "Have I been so long time with you, and yet hast thou not known Me, Philip?" Is it possible that you do not see the Father in the works He does through Me? Do you not believe that I came to testify of the Father? "How sayest thou then, Show us the Father?" "He that hath seen Me hath seen the Father." Christ had not ceased to be God when He became man. Though He had humbled Himself to humanity, the Godhead was still His own. Christ alone could represent the Father to humanity, and this representation the disciples had been privileged to behold for over three years. DA 663.5

"'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n Me: or else believe Me for the very works' sake.' Their faith might safely rest on the evidence given in Christ's works, works that no man, of himself, ever had done, or ever could do. Christ's work testified to His divinity. Through Him the Father had been revealed. DA 664.1

"If the disciples believed this vital connection between the Father and the Son, their faith would not forsake them when they saw Christ's suffering and death to save a perishing world. Christ was seeking to lead them from their low condition of faith to the experience they might receive if they truly realized what He was,—God in human flesh. He desired them to see that their faith must lead up to God, and be anchored there. How earnestly and perseveringly our compassionate Saviour sought to prepare His disciples for the storm of temptation that was soon to beat upon them. He would have them hid with Him in God." DA 664.2

추가 연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 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